

보도자료



배포일	2018. 2. 28.(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정년교수: 교무과	문의	총무과(880-5092) 교무과(880-5024)

교수 정년식 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2018년 2월 28일(수)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수 정년식을 개최하였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종숙 교수 등 46명이 정년을 맞아 정든 캠퍼스를 떠나게 된다.

성낙인 총장은 인사말에서 “정년을 맞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은 세계로 진출하는 학문적 토양을 닦으셨으며, 교수님들의 높은 기상과 의지는 서울대학교의 자양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김형준 교수가 정년교수를 대표하여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 등의 내용으로 인사말을 하였다. <인사말 전문 첨부>

주요 행사 식순

- 국민의례, 약력소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수여)
-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인사말씀(총장), 정년교수 대표 인사(공대 김형준 교수)

※ 붙임: 정년교수 명단, 정년교수 대표 인사말

【붙임1: 정년교수 명단】

대학(원)	학과(부)	성명
인문대학	미학과	오종환
	서양사학과	배영수
	영어영문학과	이종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태성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국양
	수리과학부	최형인
	지구환경과학부	이용일
간호대학	간호학과	이명선
공과대학	건축학과	김광현
		최두남
	기계항공공학부	정인석
	산업공학과	박진우
	재료공학부	강신후
		김형준
		주승기
	전기·정보공학부	박영준
		박종근
		서진현
채수익		
화학생물공학부	이승종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김수연
		안용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박영환
미술대학	조소과	신현중
사범대학	교육학과	Lynn Ilon
	영어교육과	신문수
	지리교육과	김종욱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Ka-leung Karen Moon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신남식
약학대학	약학과	김영철
음악대학	기악과	윤영숙
	작곡과	김덕기
의과대학	의학과	강홍식
		고영률
		김의종
		김중성
		안혁
		오병희
		이병란
		이윤성
		조광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최병선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김명기
		김명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은정
		최병조

【붙임2: 정년교수 대표 인사말】

올해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2006년 총장 선거에서 직원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직원 참여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셨지만 지난 세 번의 총장 선거를 통해 그런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학생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평의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정할 참여율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학내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총장의 선출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개가 잘 짓는다고 좋은 개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능숙하게 말한다고 슬기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우리 대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능하고 리더십 있는 차기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인 미국 다빈치연구소 소장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이 되면 현존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OOC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대학의 등장은 기존 대학교육 체계의 대혁신을 몰고 올 기세입니다. 특히 스탠포드, 하버드, MIT, 펜스테이트와 같은 미국의 전통 대학도 이미 온라인 대학 설립에 가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비책 없이 민족의 대학, 대학의 세계화라는 슬로건만 요란한 우리 대학이 이와 같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처럼 정치인, 판검사, 정부 고위 관료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없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제 인사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축하의 자리에서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 정년을 맞은 저희들이 떠나더라도 우리 대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인재로 성장해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32년간 훌륭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공과대학

김형준